

특별리포트

새만금방조제 주변 환경 정비 시급

군산시 드림스타트-군산의료원 튼튼한 학교생활 건강검진 협약

군산시 드림스타트 취학아동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발달상태 점검 및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르면 드림스타트는 군산의료원과 11일 '튼튼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하기 건강검진 프로그램'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산의료원은 드림스타트 아동 250여명에게 기초체위검사, 소변·혈액검사, 영상진단검사, 치과검진 등 38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적정 의료기관에 연계해 치료할 수 있으며, 독감예방접종, 태권도 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연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건축민원처리 전산화 시행

군산시는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민원처리 전산화로 업무혁신에 나선다.

건축민원처리 전산화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 민원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http://www.eais.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은 물론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기로 신청된 민원도 전산화를 통해 처리하고 보관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은 물론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호진)는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인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 사업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세심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관련부서로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과 주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 등 '익산부승4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을 들었다.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익산시 경영개발과 관계자에게 "익산 신재생에너지 주변은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협오시설 주변이라는 피해의식이 많은 만큼 새로운 희망을 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파손 어선·어구 등 방치...관광 시즌 앞두고 미관 저해

군산의 관광명소인 새만금방조제와 비유항 주변이 버려진 어선과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관광명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인근 도로변에는 어선들이 깨지고 부서진 상태로 온갖 어구와 쓰레기에 뒤덮인 채 방치돼 있다.

이렇게 파손된 채 방치된 선박은 새만금매립지 인근과 비유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치된 선박은 어업활동을 그만두면서 노후선박의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낀 선주들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폐선박으로 수개월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파손된 방치선박들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새만금 주변경관이 훼손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새만금미라본 대회가 열리는

오는 4월부터는 낚시객을 포함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새만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어촌계와 협력해 선박을 방치한 선주의 신원을 파악하고 선주에게 자진 제거 명령 조치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만금방조제와 매립지 주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방치된 쓰레기와 선박 현황을 파악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 등 지속적인 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새만금을 찾은 한 관광객은 "새만금방조제를 걷다보니 쓰레기와 버려진 어선들이 너무 많았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방조제를 구경하고 싶어 왔는데 이렇게 버려진 어선과 쓰레기로 인해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남·45)씨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새만금방조제와 비유항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 비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양관광도시 이미



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문동신 시장·간부공무원 방제현장 찾아 발전전략회의 개최

군산시가 주요현안 사업의 하나인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14일 월명산 재선충 방제현장을 찾아 발전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 최초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청암산 등에 고사목이 발생했으며 현재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유니드 등) 재선충병 방제 업무협약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재선충병 피해자인 월명공원의 생태 복원을 위한 범시민 월명공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7일 월명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해 월명공원의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600여명의 시민과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13곳이 나무 심는 기업'으로 참여해 편백나무, 측백나무, 산수유 등 98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시는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월명공원의 빠른 생태복원과 내가심은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나무를 가꾸어 숲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모두베기 지역

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생태복원을 위해 편백나무 및 산수유, 맥문동 등을 식재할 예정으로 특히 월명공원은 올해 100% 조림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제7회 식목일을 맞아 군산시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산림복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익산 용동 연화마을 풍년 기원 당산제

병신년 새해 용동면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연화마을 당산제가 지난 12일 용동면 연화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열렸다.

이날 당산나무 앞에는 사찰축이 정성들여 마련한 떡과 과일, 나물 등의 제물이 차려진 가운데 스님들의 독송으로 당산제가 시작됐다. 풍물패의 신명난 가락이 흥을 돋우고 마을 사람들은 달집태우기 행사 등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한해의 풍년을 빌었다.

연화마을 당산제는 용동면 한가운데 봉화산이 내려앉아 자리하고

외적의 침략을 받거나 나라에 번고가 생겨 봉화산에 햇불이 피어 오를 때면 연화마을 당산나무 주변에는 주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상서로운 연꽃이 울긋불긋 피어올라 용동면 주민들을 위함으로부터 지켜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당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신성시하며 매년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당산나무의 위신력과 연꽃의 상서로움을 기리기 위하여 마을 이름을 연화마을이라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경찰간부후보생 4명 합격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경찰행정학과가 지난해 경찰간부후보생 5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4명이 최종 합격함으로써 학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합격자는 남자 일반분야에 지원한 이준호(07학번), 김수산(10학번), 천정범(10학번), 박동아(04학번) 씨 등으로 총 40명의 일반분야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법학과 졸업생 김도희(08학번) 씨도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합격해 원광대는 모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최종 합격자들은 앞으로 경찰교육원

에서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경위로 임관해 일선 경찰 간부로 활동을 시작한다. 1985년 신설된 원광대 경찰행정학과는 2001년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첫 합격자가 나온 이후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순경공채 경쟁 채용시험에서도 매년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700여 명의 졸업생 중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외에도 사법고사와 행정고시, 대통령 경호실 검찰 법원직을 비롯한 공무원과 경찰시험 등에서 400여 명이 합격해 공무원 배출의 산실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기술상담회 개최

군산시가 오는 1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에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한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지역 13개 유관기관 및 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2016년도 군산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과 자금, 인력, 판로, 기술정보 등 분야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으로 이뤄지며 관내 중소기업인 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책자를 배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관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 기업하기 좋은 군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2~3년 짜리 딱딱하고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독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터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학스]
학스 회사에 (500-1000)를 배수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문의하면 학스 배수구 설치 1시간
안에 방문해서 무료 설치!

씨서라를 사용하면 배수구 막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 막힘은 싱크대 배수구
내부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고
배수구 내부를 청소하면
배수구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씨서라를 사용하면 배수구 막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 막힘은 싱크대 배수구
내부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고
배수구 내부를 청소하면
배수구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